

배현진 습격 중학생 '보호입원' 전환

습격범 A군 부모 동의하 보호입원으로 치료 필요...경찰, 병원 방문 조사 계속 피의자·부모 추가조사 및 주거지 압색도



배현진(41·서울 송파구)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 A(15)군이 보호입원 상태로 전환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군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30일 "이날 오전 A군이 부모의 동의하에 보호입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길에서 배 의원을 둔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한 뒤 그를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기간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날부터 A군에 대한 조치 기한이 만료되면서 보호입원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보호입원은 응급입원과 마찬가지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해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신청을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대 2주간 입원이 가능하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소견 일치 여부가 있으면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명확한 범행 동기와 단독 범행 및 범죄 계획 여부 등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군은 검거된 당일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러 갔으나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 의원을 피습하는 데 사용한 흉기인 돌을 지니고 있었던 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배 의원의 동선을 미리 알고 기다렸다는 점, 체포 당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군이 지난 12월 발생한 '경복궁 낙서' 모방범 피의자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갑과 돈을 투척하는 등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돌발행동을 해왔다는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군의 경우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경찰이 전날(29일) 병원과 강남구 대치동 집을 찾아 그와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 28일에는 대치동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분석을 토대로 본인 조사를 끝내야 단독범인지 공범이 있는지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넓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군을 체포한 당일 일의제출받은 휴대전화와 28일 주거지에서 압수한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 중이다.

김희면기자



광주동부소방,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합동 화재안전점검 실시

광주동부소방서는 지난 25일 관내 전통시장 4개소(대인, 산수, 남광주, 남광주해 뜨는 시장)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슬비기자



강진소방 의용소방대, 아파트 피난요령 캠페인 개최

강진소방서는 29일 강진소방서와 강진군 의용소방대원들이 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난요령 캠페인을 실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구례소방, '전라남도 22번째 소방서' 개청식 개최

구례소방서는 지난 30일 개청식을 개최하고 구례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힘찬 출발을 알렸다.

구례=박진호기자



완도소방, 아파트화재 대비 관서장 합동 안전점검 추진

완도소방서는 29일 완도군 진아리체 아파트에서 화재 대비 관서장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추진

광양소방서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13일까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장흥경찰, 생활안전연합회 위촉식·간담회 개최

장흥경찰서는 지난 25일 생활안전연합회 등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생활안전연합회 위촉식을 갖고 이영일 씨를 연합회장으로 위촉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학폭 노쇼' 권경애, 첫 재판도 불출석...유족 "분통 터져"

지난해 강제조정 결렬...정식재판 돌입해 유족 "정치활동만 열중...정작 사과 없어"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기철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30일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손배소 1차변론을 마친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무산돼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는 늘상 잘못된 사람은 사과를 해야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본인은 그럴

게 정치적인 활동은 열중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도, 그의 소속 법인도 (사건이) 빨리 끝나서 빨리 잊혀지길 바라고 있다"며 "저는 그들에게 빨리 잊혀질 좋은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단언했다.

'권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나'는 취지의 질문에는 "자신의 재판을 불출석 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7년간의 재판 기간 동안 증인신청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6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권 변호사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자신의 정신적 충격이 심해 소송해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답변서 내용을 보면 권 변호사 측은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유나기자



어르신 건강지원 국밥나눔 행사

이 어르신들께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30일 오전 설 명절맞이 지역어르신 '건강지원 국밥나눔 행사'가 열린 인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에서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임행택기자

순찰차량 들이받고 경찰 폭행 남성들에 구속영장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출동 경찰관까지 때린 남성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자신을 쫓던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자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남성 B씨에게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 광산구 월곡동 한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손톱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술에 취한 B씨는 길가에 세워진 이륜차를 넘어뜨린 뒤 이를 항의하던 주인을 때리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행택기자